

단국대학교 202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 계열 가이드 답안

문제 1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1)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2) [가]와 [나]가 지향하는 사회를 위하여 [다]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방법을 각각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3) 제시문 [라]의 등장인물 ‘아내’(영혜)와 [마]의 ‘병국’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로 인해 각각 주변 인물들과 갈등을 겪는다. 이 문제는 [가]와 [나]의 관점에서 ‘아내’와 ‘병국’을 대하는 주변 인물들의 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다]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국어』 교과 ‘(2)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및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글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방법을 각각 설명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1] “가치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및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점·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와 관련된다.
-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갈등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추론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 ‘(2)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및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 [나]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 ‘(3) 독서의 분야’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3-01]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와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7) 문화의 다양성’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7-04]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 ‘(2) 개인과 사회 구조’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2-01]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한다.”와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 (3) ‘문화와 일상생활’ 영역의 성취기준 [12사문03-01]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 (6) ‘평화와 공존의 윤리’ 영역의 성취기준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은 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와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7) 사회 변화와 공존’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7-03]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 (3) ‘서양윤리사상’ 영역의 성취 [12윤사03-05]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양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라], [마]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영역의 성취기준 [12문학02-03]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 ‘(5)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와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 ‘(5)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와 관련된다.
- 제시문 [가]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보다 공존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주장한 글이다.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 부분에 나오는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에서 발췌한 것이다.
- 제시문 [나]의 첫 번째 지문은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의 창조적 가능성을 설명한 글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문화와 다양성’ 부분의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 존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두 번째 지문은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방지하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의 구체적 사례를 설명한 글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문화와 다양성’ 부분의 ‘세계의 다문화 정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 제시문 [다]의 (자료1)은 자문화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장자 사상을 언급한 글이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문화 변동의 이해’ 부분의 ‘문화 변동에 따른 부작용에 어떻게 대처할까’ 부분에서 발췌한 것이다. (자료2)는 원효의 화쟁사상을 설명한 글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부분의 ‘소통과 담론의 윤리’ 부분에서 발췌한 것이다. (자료3)은 종교적 갈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글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다문화 사회의 윤리’ 부분의 ‘종교의 공존과 관용’ 부분에서 발췌한 것이다. (자료4)는 데이비드 흄의 공감(sympathy) 개념을 설명한 글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는 무엇인가?’ 부분의 ‘도덕적인 삶과 감정’ 부분에서 발췌한 것이다.
- 제시문 [라]는 채식주의자인 ‘아내’에게 가해지는 주변 인물들의 관습적 폭력과 편견을 다룬 소설이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한국 문학의 다양성과 역동성’ 부분에 나오는 「채식주의자」에서 발췌한 것이다.
- 제시문 [마]는 산업화가 진행되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환경 보존과 개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문학과 사회·문화적 가치’ 부분에 나오는 「도요새에 관한 명상」에서 발췌한 것이다.

□ 자료 출처

- [가]: 방민호 외(2019), 『고등학교 독서』, 미래엔, 176~181쪽.
- [나]: 구정화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232쪽.
이진석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234~235쪽.
구정화 외(2024), 『고등학교 사회·문화』, 천재교육, 184~185쪽 관련.
김영순 외(2019),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학사, 193~194쪽 관련.
서범석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지학사, 193~194쪽 관련.
신형민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비상교육, 179~180쪽 관련.
- [다]: 손영찬 외(2018), 『고등학교 사회·문화』, 미래엔, 129쪽.
변순용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190쪽.
변순용 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133~134쪽.
차우규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금성출판사, 179쪽.
김국현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비상, 193쪽 관련.
박찬구 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씨마스, 138~139쪽 관련.
- [라]: 김동환 외(2019),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육, 317~321쪽.
- [마]: 이삼형 외(2018), 『고등학교 국어』, 지학사, 222~234쪽.

□ 문항 해설

1)번 문항(15점)

-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는 문항이다.
- [가]는 과학 칼럼니스트 이은희의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흔히 인간 사회에서 경쟁과 불평등의 근원을 설명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저자는 다윈의 연구가 획일성보다는 생물체 변이의 다양성, 생태계와 생물체 간의 상호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고 해석하며, 이를 근거로 다윈의 진화론이 다양성과 화합, 공존과 더불어 사는 삶이 최대의 가치가 되는 시대에 필수적인 공존의 논리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 [나]는 다른 인종,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은 다양한 사회 갈등이 생겨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사회는 문화 선택의 기회 확장, 문화 간 상호 작용을 통해 창조적 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 있다고 주장한다. 다문화 사회 정책의 예로는 융합된 문화 정체성을 지향하는 ‘용광로 정책’에서 다양한 문화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 간의 조화와 공존을 중시하는 ‘샬러드 볼 정책’으로 전환한 프랑스 파리, 최초로 ‘샬러드 볼 정책’을 시행해 사회 시설, 문화 행사,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민족에게 동등한 사회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캐나다 토론토를 제시하고 있다.

2)번 문항(20점)

- 1)에서 요약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방법을 각각 설명하는 문항이다.
- [다]의 (자료1)은 자문화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장자 사상을 언급한 글이다. 장자에 따르면, 각 개인의 본성과 환경에 따라 기준과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을 바탕으로 전혀 다른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즉, 장자의 사상은 각자의 방식에 따라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서로 다른 존재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 [다]의 (자료2)는 원효의 화쟁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원효 역시 자신에 대한 집착과 타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장자와 유사하다. 그러나 원효의 화쟁사상은 차이를 그 자체로 인정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상반되어 보이는 교설들도 사실 큰 틀에서는 서로 융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의 편견을 버리고 대화를 통해 접점을 만들어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 [다]의 (자료3)은 종교적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한스 쾅의 글이다. 쾅은 종교 간의 조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종교의 실수와 과오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자기비판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자기비판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종교적 견해에 대한 평가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쾅의 생각이다.
- [다]의 (자료4)는 데이비드 흄의 공감(sympathy)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흄에 따르면, 내가 누군가와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감정과 같은 감정을 내가 느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큰 상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서 같이 기쁨을 느끼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슬픔을 느끼는 사람을 보면서 같이 슬픔을 느끼는 것이 공감이다. 흄은 우리가 공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3)번 문항(20점)

- [가]와 [나]의 관점에서 [라]의 등장인물 ‘아내’와 [마]의 ‘병국’을 대하는 주변 인물들의 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하고, [다]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문항이다.
- [라]는 육식을 거부하는 ‘아내’와 그런 아내를 비난하고 설득하는 주변 인물들의 폭력적 시선을 드러낸 소설의 한 장면이다. ‘나’는 채식주의자인 아내를 못마땅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어느 날 ‘나’의 회사 임원들의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불편해하는 기색을 드러낸다. 모임에 참석한 이들 중 어떤 이는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라 말하고, 어떤 이는 ‘골고루 먹는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원만하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육식을 ‘혐오’하는 채식주의자와 밥을 먹는 것은 ‘끔찍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심지어 ‘아내’는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의 장모와 처형은 ‘아내’를 설득하고, 장인은 ‘아내’를 호통친다. 채식주의자인 ‘아내’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가치나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주변 인물들의 태도는 [가]와 [나]에 제시된 ‘다양성’과 ‘공존’의 관점에서 보면 ‘획일성’을 강요하는 폭력이라 할 수 있다.
- [마]는 산업화 과정에서 불거진 환경 오염으로 인해 동진강의 새나 물고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병국’(화자의 아들)의 가치와 경제 성장을 우선으로 여기는 비(B) 공단 사람들의 가치가 부딪치는 상황을 드러낸 소설의 한 장면이다. 제시문에는 ‘나’ 혼자 집을 지키던 어느 날, 비료 공장 노무과장과 그가 대동하고 온 젊은이들이 느닷없이 들이닥쳐 아들 ‘병국’의 상관이나 보자며 주먹을 내두르는 모습부터 보인다. ‘나’는 이들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대꾸도 하지 못하는데, 또 다른 젊은이는 당장 작살을 내고 말 기세로 ‘병국’을 찾는다. 노무과장은 ‘병국’이 낸 진정서를 ‘나’에게 보이는데, 진정서에는 공장이 폐기 처리 과정에서 암모니아 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한 점, 그 일로 동진강 하류에서 작업하던 어민이 심한 두통과 구토증으로 실신한 사건이 벌어진 점, 공장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 등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노무과장과 젊은이들은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병국'의 문제 제기를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미친놈 짓거리'라며 폄하한다. 노무과장은 기계 고장으로 가스가 샌 것이지 고의가 아니라며, 공단 측에서도 공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책정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러나 '이론을 앞세워 설득'하려는 노무과장이나 '힘을 과시'하는 젊은이들의 태도는 [가]와 [나]에 제시된 '화합', '공존'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의 가치나 논리를 무시하는 폭력이라 할 수 있다.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는 진화론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찰스 다윈의 연구가 생물체 변이의 다양성, 생태계와 생물체 간의 상호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화론은 획일성과 경쟁보다는 다양성과 화합, 공존의 논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 갈등이 생겨날 수 있지만,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는 보다 창조적 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파리와 토론토의 예를 제시한다. (250자)

2번) 예시 답안

[가]와 [나]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존재자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장자는 각 개인의 가치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강조한다. 반면 원효는 상반되어 보이는 생각들도 큰 틀에서는 서로 융합할 수 있기 때문에, 편견 없는 대화를 통해 접점을 만들어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켄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견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실수를 성찰적으로 판단하는 자기비판이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흠은 타인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공감 경험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347자)

3번) 예시 답안

[라]에서 '나'의 회사 사람들은 '아내'의 채식주의를 본능을 거스르는 것,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라며 다름을 비정상적으로 규정한다. '장인'은 육식을 설득하고 강요하기까지 한다. [마]에서 공단 사람들은 환경을 위해 진정서를 낸 '병국'의 행동을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미친놈 짓거리로 규정한다. '아내'와 '병국'의 주변 사람들은 공존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성보다 획일성을, 화합보다 자신들의 가치만 옳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융합적 자세가 필요하다. 나아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나 논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상대의 입장과 가치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397자)

문제 2

□ 출제 의도

- 문제 1)은 제시문 [가]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무역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다]의 ‘비교 우위에 따른 수출 품목의 변화’ 현상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문제 2)는 제시문 [마]의 자료를 활용하여 [라]의 자유 무역주의의 ‘이점’과 ‘문제점’에 대한 주장 중 적합한 근거로 선택하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 ‘(3)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독서』 교과 ‘(2) 독서의 방법’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와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3) 작문의 원리’ 영역의 성취기준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와 관련된다.
- 이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 ‘(5) 시장경제와 금융’ 영역의 성취기준 [10통사05-03]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경제』 교과 ‘(4) 세계 시장과 교역’ 영역의 성취기준 [12경제04-01]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을 중심으로 무역 원리를 파악하고,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한다.”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 ‘(1)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영역의 성취기준 [10한사01-06] “조선 시대 신분의 구성과 특성을 살펴보고, 양난 이후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신분제에 변동이 나타났음을 이해한다.”와 『고등학교 독서』 교과 ‘(3) 독서의 분야’ 영역의 성취기준 [12독서03-04]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대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을 읽는다.”와 관련된다.

□ 자료 출처

- [가]: 박형준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천재교육, 141쪽.
구정화 외(2019),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156쪽.
- [나]: 한철호 외(2020),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79쪽.
박영목 외(2019), 『고등학교 독서』, 천재교육, 165쪽.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 134쪽.
- [다]: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44쪽.
서중해(2003), 「한국 산업경쟁력 종합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구정화 외(2019),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156쪽 관련.
- 박형준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천재교육, 141쪽 관련.
-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 134쪽.
정형곤 외(2024),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구조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구정화 외(2019),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156쪽 관련.
- 박형준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천재교육, 141쪽 관련.
-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 134쪽.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 구정화 외(2019), 『고등학교 통합사회』, 천재교육, 156쪽 관련.
- 박형준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천재교육, 141쪽 관련.
- 유종열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비상, 134쪽.
- [라]: 송병건,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 물고 물리는 이념 공방전」, 『중앙선데이』, 2015. 12. 13.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50쪽.
- 김진영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미래엔, 144쪽 관련.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140쪽.
안재만, 「2차대전 후 보호무역이 사라졌던 이유를 돌아보면」, 『조선비즈』, 2018. 8. 2.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통합사회』, 미래엔, 150쪽.
- 김진영 외(2019), 『고등학교 경제』, 미래엔, 144쪽 관련.
- 허수미 외(2019),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140쪽.
- [마]: 『관세청 홈페이지』
- 박병기 외(2017),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 151쪽 관련.
- 김종호 외(2018),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150쪽 관련.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박병기 외(2017),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 151쪽 관련.
- 김종호 외(2018),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150쪽 관련.

- 『한국소비자원』, 「2020 FTA 소비자 후생지수 측정보고서」, 2021. 6. 30.
- 박병기 외(2017),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 151쪽 관련.
 - 김종호 외(2018),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150쪽 관련.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 이슈 보고서 -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대응과제」, 2021. 3. 20.
- 박병기 외(2017),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 151쪽 관련.
 - 김종호 외(2018),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150쪽 관련.
- 안광호(2024), 「한·칠레 FTA 20년...농식품 교역규모 3배 늘었지만 농가 수는 급감」, 『경향신문』, 2024. 4. 17.
- 박병기 외(2017),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 151쪽 관련.
 - 김종호 외(2018),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153쪽 관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칠레 FTA 농업부문 영향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9. 30.
- 박병기 외(2017),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 151쪽 관련.
 - 김종호 외(2018), 『고등학교 경제』, 씨마스, 153쪽 관련.
- 박병기 외(2017), 『고등학교 통합사회』, 비상, 152쪽.

□ 문항 해설

1)번 문항(25점)

- [가]는 ‘비교 우위론’을 통해 국제 분업과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나]의 첫 번째 지문에서는 박제가가 「북학의」에서 해외 국가들과의 통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 번째 지문에서는 박지원이 이를 적극 지지하며 국가 간 개방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지문에서는 마크 레빈슨의 「더 박스」를 통해 컨테이너의 등장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국제 협력과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나]는 무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나]의 주장은 [가]의 비교 우위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각 국가는 자신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를 생산하고 무역을 통해 필요한 재화를 교환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국가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의 기반이 되며, 더 다양한 재화를 낮은 비용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또한 증진시킨다.
- [다]는 우리나라의 주요 5대 수출 품목과 함께 반도체와 의류 산업의 비교 우위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준다. [가]의 ‘비교 우위론’을 활용하면, 2010년 이후 의류가 5대 수출 품목에서 제외되고 반도체가 1위를 차지하게 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한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에 특화함으로써 무역에서 이익을 얻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의류 산업에서의 비교 우위를 점차 상실했고, 기술력과 생산성이 높은 반도체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교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 자원이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인 반도체 분야로 집중되었고, 이는 수출 구조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다.

- [가]의 비교우위론을 활용하여 [나]의 주장과 [다]의 현상을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2)번 문항(20점)

- [라]의 A 정당은 영국 자유당이고, B 정당은 영국 자유 유니언 주의자당이다. A 정당은 자유 무역주의와 B 정당은 보호 무역주의의 입장에서 경제에 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 [마]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각 정당의 입장에서 이점이 있음을 설명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나]는 국경을 넘어 해외 국가들과 통상을 하면 국가 경쟁력과 국제 협력이 증대될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에 따르면 각 국가는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비교 우위 상품에 특화하고 분업하여 생산량을 늘린 뒤 자국이 생산한 상품을 다른 국가와 교환함으로써 거래 당사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서 주장하는 무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다]는 우리나라의 5대 수출 품목과 반도체 및 의류 산업의 비교 우위가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가]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아 비교 우위가 있는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기회비용이 높은 의류를 수입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수출 품목이 변화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04자)

2번) 예시 답안

[라]의 A 정당은 자유 무역을 통해 얻는 이점을 강조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마]의 자료1, 자료2이다. 자료1은 자유 무역을 통해 무역 교역량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주어 수출시장이 확대됨을 설명하고, 자료2는 소비자 후생지수의 연도별 증가를 통해 같은 제품을 보다싼 값에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B 정당은 자유 무역의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보호 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자료3, 자료4이다. 자료3은 개도국이 자국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역기술장벽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수립하는 횡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자료4는 FTA로 인한 농가 수와 농가 인구가 줄어들고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통해 경쟁력 약한 산업인 농업이 위협에 처하는 불이익을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417자)

